

Think of Humanity & Ecology

삼육대학교 환경그린디자인학과·환경디자인원예학과 제 18회 졸업전시회



the [더]

sustainable design

계 속 하 여 유 일 한 존 재
그 위 에 보 태 어 사 물 앞 에 붙 임

presented by



supported by



본 전시 및 책자는 학사취득을 위한 필수과정이며
졸업논문을 대신합니다.

2018년 4월 9일 발행
삼육대학교 환경그린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Enviromental design & Horticulture, Samyook University
815, Hwarang-ro, Nowon-gu, Seoul, Korea
02-3399-1724(학과사무실)

Environmental Design & Horticulture

학과소개

환경디자인원예학과는 관상식물을 현대 생활 환경에 조화롭게 디자인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Eco-Design 학문을 실천하는 학과로 빠르게 변해가는 현대 사회 공간을 기능성과 미적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환경디자인, 화훼장식디자인, 그린디자인 관련 교과목을 교육하는 학과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관련분야의 많은 디자이너가 요구되는 21세기를 위해 인간에게 식물이 미치는 심리적, 정서적 건강과 물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파악하게 함으로서 독창성 있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교육목표 및 목적

환경디자인원예학과는 ‘좋은 환경은 좋은 사람을 만든다.’ 라는 목표로 생활 문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의 이론과 실기를 집중 훈련하고, 졸업과 동시에 국내의 어느 곳에서나 활동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교육시키며, 오염된 환경과 도시를 관상식물로 이용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그린디자이너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비전과 진로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졸업 후 실내조경업을 자영할 수 있으며, 건축회사 및 관련 업체의 조경디자이너, 조경회사, 기업체의 실내조경관리사, 방송무대장식, 공항실내조경사, 호텔식물 디자인 및 관리사, 플로리스트, 플라워 샵 경영, 컬러리스트 등 많은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공분야로 앞으로 현대사회에서 더 많은 환경디자인원예 전공사가 필요로 하여질 것으로 전망되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n address of welcome

환 영 사

삼육대학교 환경디자인원예학과(환경그린디자인학과)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환경디자인원예학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에코 학문을 실천하는 **환경그린디자인학과**와 전통적인 **원예학과**가 융복합된 학과로 도시환경디자인, 화훼장식디자인, 그린디자인 분야를 선도하고자 학과 교수들과 학생이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환경과 사람이 조화롭게 의미 있는 디자인을 하고자 “**더; Think of Humanity & Ecology(THE)**”라는 제목으로 '계속하여'라는 뜻과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전시회이며 누구보다 앞서서 사람들이 되자는 의미를 담아 제18회 졸업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배우고 느끼고 즐겼던, 자연과 공존하는 디자인 작품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선보이고자 하오니 사회에 나아가 보다 큰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시 반 번 감사의 마음을 담아 환영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삼육대학교 환경디자인원예학과(환경그린디자인학과)

제18회 졸업전시회 작가와 교수일동

Congratulatory message

삼육대학교 총장 김 성 익



산업과 경제의 발전은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순환과 재생의 농경문화를 개발과 소비의 산업문화로 바꾸어 환경 훼손과 자원의 고갈을 야기시켜왔습니다. 문명의 발전이 눈부시긴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발전은 자원의 고갈과 함께 언젠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고민한 세계의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수차례의 선언과 성명과 협약을 채택하여 경제발전과 환경보존이 함께 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인종과 이념을 초월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범 세계적 이슈입니다.

무엇이 지속가능한 발전인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극히 작은 한 구간을 할애 받아 살다가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겸허해져야 합니다. 잠깐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자원과 환경의 창고를 바닥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존하고 재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도 창조주는 천연계를 “경작하며 지키게” (창2:15) 하심으로 환경보존을 신적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삼육대학교 환경디자인원예학과는 도시와 자연의 공존, 인공물과 자연물의 조화를 이루어 도시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존을 가르치는 학과입니다. 특별히 이번 전시회에서도 『the [더] Think of Humanity & Ecology』라는 주제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며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전시 공간을 찾는 모든 분들이 창조의 영감이 번득이는 작품들을 통해 생명력과 삶의 여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본 전시를 위해 장소를 허락해주신 우리은행장님과 기획하신 학과 교수님들과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Congratulatory message

우리은행 은행장 손 태 승



안녕하십니까, 우리은행 은행장 손태승입니다. 삼육대학교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제18회 졸업작품 전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 : THE(더)”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우리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관점에서 디자인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디자인계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 성장이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디자인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속가능한 디자인 : THE(더)” 전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를 되돌아보고, 인류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 걸음 전진하는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할 수만 있어도 그 디자이너는 성공을 거둔 것이다.” 유명 산업디자이너 헨리 드레이퍼스의 말처럼 미래의 주인공인 여러분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발굴하여 세계에 행복을 주는 디자이너로서 ‘THE’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ntention of planning

기획 김 유 선 (환경그린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교수)



환디인이 의미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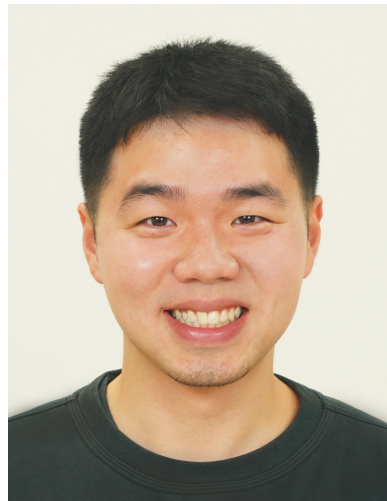
더; Think of Humanity & Ecology(THE)

환경과 인간의 조화로운 어울림과 환경을 계획하고 표현하는 삼육대학교 환경그린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의 2018년 졸업전시회 주제는 **Sustainable design**(지속가능한 디자인)입니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계된 전 과정에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는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경제체제의 디자인이 아닌 환경과 조화롭게 지속적으로 살아가며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하려고 **노력**하는 디자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광범위하면서 이해하기 힘든 주제를 이번 졸업전시회 작가들은 나만이 아닌 너와 나 그리고 자연이 조화로운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디자인 작업으로 아름답게 해석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제18회 삼육대학교 환경그린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졸업전시회에서 나타낸 Sustainable design은 '계속하여'라는 뜻과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전시회이며 누구보다 앞서서 사람들이 되자라는 의미를 담아 “**더;** Think of Humanity & Ecology(THE)” 라는 제목으로 표현하였습니다.

Sustainable design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한 환디인들의 작품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상하시기 바라며, 변화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준비해준 졸업전시회 작가들에게 힘찬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Message of student chairperson



삼육대학교에서 첫 봄을 맞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이 전 선배들의 졸업작품전시회에 참여하며 설레어 그려봤던 훗날의 봄이 오늘의 봄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18회 졸업작품전시회 위원장 김정음입니다.

제 18회 졸업작품전시회는 Sustainable Design 즉, 지속가능한 디자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Think of Humanity & Ecology” 인간과 그것을 어우르는 환경을 어떻게 하면 더 조화롭게 지속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저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깨닫고 함께 고민해볼 수 있도록, 저희는 각자가 고민했던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작품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곧 사회의 출발선상에서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될 예비 디자이너들의 작품전시회입니다. 본 졸업작품 전시회는 작가들의 고민과 땀이 섞인 1년의 Design Processing 준비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소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응원과 사랑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작품전시회를 준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교수님들과, 선배, 후배, 그리고 졸작위원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전시회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준 많은 학생 작가분들, 저희 전시회에 방문해주신 많은 내외빈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더욱 새롭고 아름다운 봄을 허락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Think of Humanity & Ecology

계속해서, 그 위에 보태어

CONTENTS

01

디스플레이

김민서, 남지원, 노희영

02

캠페인디자인

손지수, 신유미, 정유정
김정음, 신현일
황선욱

03

환경디자인

권준태, 김형승, 원유진
김경은, 김지수
정유진

04

조경디자인

김다영, 김주리, 강현정, 육동한
김지원, 이승희

05

정원디자인

김서영, 이호진, 정용현
조한식

06

화훼디자인

문희
안주연
우수경
이민경
조윤정
태지혜
홍수민

07

패션디자인

황유성

08

제품디자인

김현지, 유혜민
박계영, 이지연
송채린
이승민
박기돈
정승환

09

패키지디자인

고단희, 박진하

디스플레이

Display

모비니즘 [movinism]

모더니즘과 빈티지의 합성 신조어로, 이번 전시 디스플레이의 컨셉이다.

현대적 감각은 살리며 동시에 재활용 가능한 제품들을 사용함으로써 빈티지를 더했다.

모비니즘은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재 더 나아가 미래까지 적합한 예술상이라고 볼 수 있다.

01. 디스플레이

[PROLOGUE]

앞서 르네상스, 가든하다, DA 그리고 THE

18번째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주어진 생활 속에서 그 자연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고려하여 대용량 저가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재료 선정에 있어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가능여부가 최우선 고려사항이었다. 단순히 일회성이 아닌 또 다시 재활용하면서 주제인 THE와 부합한 제품들로 공간을 나눠 활용성을 높였다.

[CONCEPT & IC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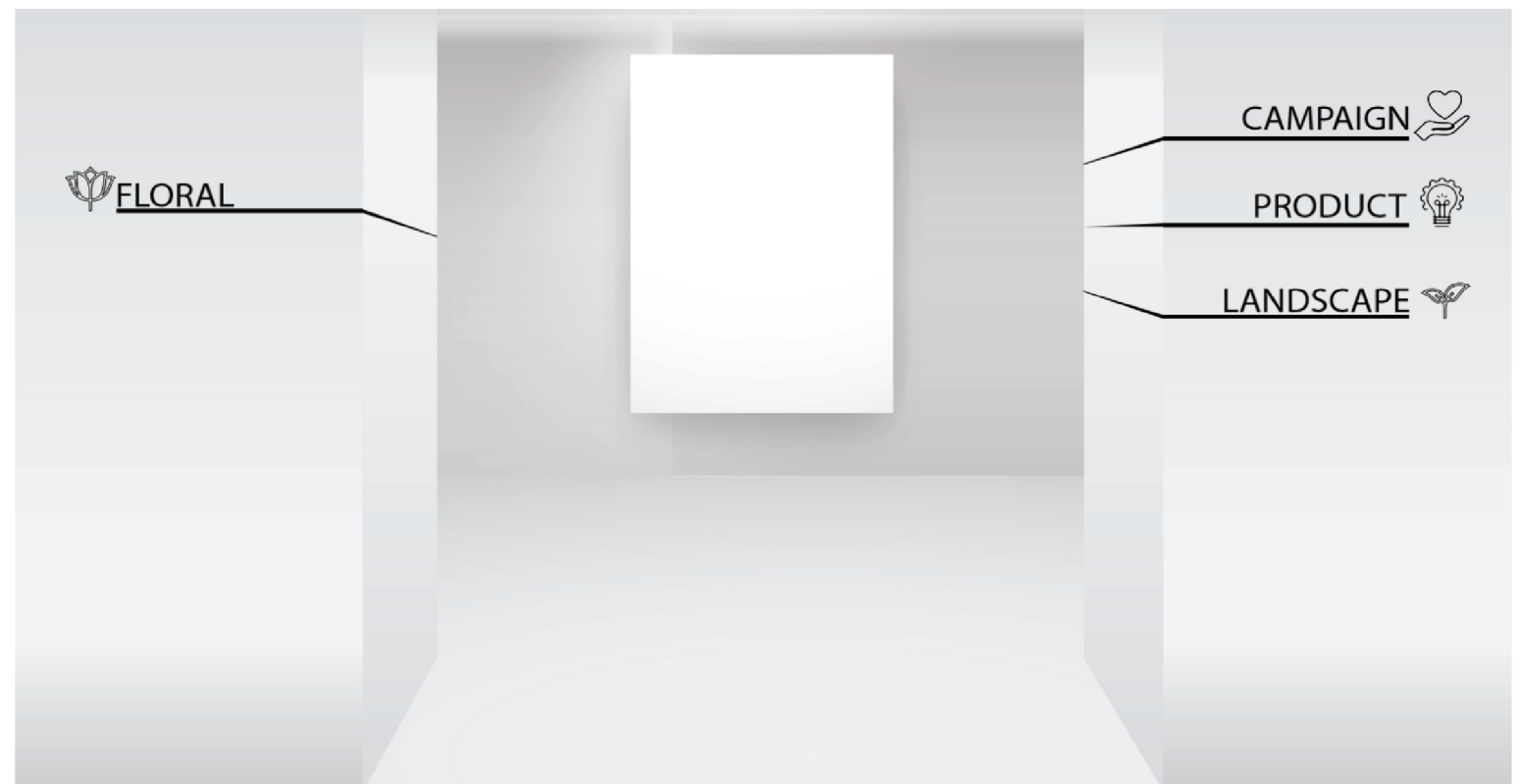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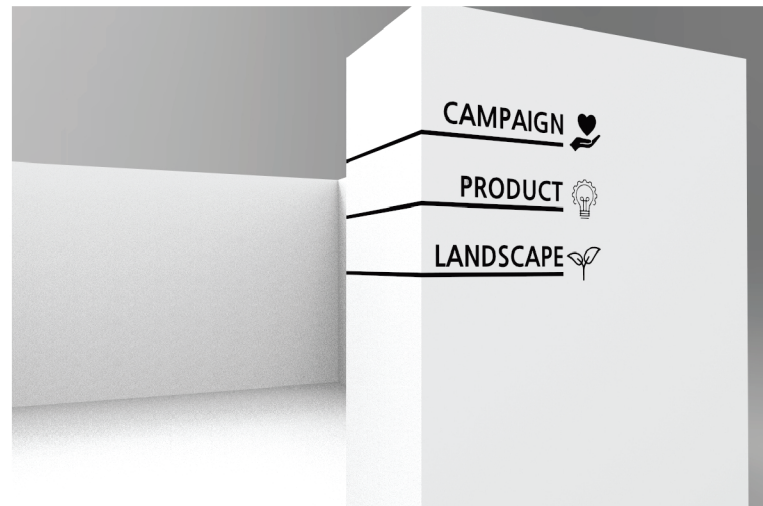


시트지의 색상을 각 파티션에 차별성을 두어 제품, 캠페인, 조경, 화훼 순서로 하였다.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색상인 연노랑, 캠페인의 의미를 표현한 연분홍, 조경의 느낌을 담은 옅은 박하, 화훼의 다양함을 표현한 연보라로 구역을 나누었다.

01. 디스플레이

[IMAGE CONCEPT]



01. 디스플레이

[VIEW]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의 공존

전시 주제인 THE에 대한 의미 상기와 함께

지난 포스터를 되돌아보며 더 나은 미래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일깨우고,
사람과 환경이 서로 조화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보았다.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뤄 **모비니즘**의 극치를 보여준다.



